



주간통일정세 2011-02(2011.01.03~01.0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0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새해 화두 ‘자력갱생’…노력동원 신호탄?(1/3, 조선중앙방송)**
 - 방송에 따르면 북한 최대 철강생산기지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일요일인 2일 자력갱생결의를 다지는 대규모 노동자 쫄기대회를 가짐.
 - 김책제철 당위원회 리철훈 책임비서는 행사에서 “중요 생산설비의 정비보수를 자체의 힘으로 해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 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또 김책제철 노동자들이 채택된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지난해 우리 김철(김책제철의 줄임말)에서도 원료와 자재 사정은 어려웠지만 우리가 다 맡자는 비상한 각오로 떨쳐나섰다”면서 외부 도움이 없더라도 자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촉구
 - 평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정으로 1면을 도배해 온 당기관지 노동신문의 경우 3일자 1면을 김책제철 쫄기대회 기사로 채웠고, 다른 매체들도 공동사설의 자력갱생과 생산증대 요구에 공감을 표시하는 각계 반응을 신속히 전함.

- **평양시민 10만명 ‘공동사설’ 관철 결의 다져(1/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3일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시 근로자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중대회를 열고 신년 공동사설 관철 결의를 다졌다고 방송은 전함.
 -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경공업을 우선시해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겠다”며 “모든 단위에서 생활필수품 생산을 늘려 수도 시민에게 질 좋은 소비품과 식료품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겠다”며 공동사설이 밝힌 경공업 우선 방침을 재확인함.
 - 이날 보고를 한 문경덕 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도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라며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고 자체의 원료 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함.
 - 결의문은 이어 10만 세대 주택건설사업 등을 거론하면서 “평양시가 모든 분야에서 강성대국의 체모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지적하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는데도 큰 힘을 넣고 군민일치의 미풍을 꽃피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 리경식 농업상 재임용(1/4, 교도통신)**
 - 김창식 농업상이 물러나고 리경식 농업상이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
 - 통신은 4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리경식 농업상’을 필자로 한 글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전함. 리 농업상은 이 글에서 올해 작물 생산량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힘.
 - 리 농업상은 농업과학원 부원장을 지냈으며 2003~08년에도 농업상의 직책을 맡은 바 있음.

- **“北,김정은 생일 ‘평일처럼 지내’ 지시”, 대북단체(1/7, 연합뉴스)**
 - 김정은의 생일(1.8)을 평일처럼 지내라는 지시를 각 지역에 하달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가 전함. 소식통을 인용, “1월8일 전국적으로 휴식하지 않고 정상 출근하며 그 어떤 행사도 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힘.
 - ‘데일리NK’는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을 인용, “8일이 청년대장(김정은) 동지의 생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지침이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특별공급이 이뤄지거나 조직적으로 기념 행사를 여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지난해에는 특별 휴식도 있었지만, 올해는 토요일과 겹쳐서인지 휴식일 선포도 없었다”면서 “간부들이나 주민들이나 신년공동사설 암기와 퇴비 모으기에 동원되는 등 예년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덧붙임.

- **北, 김정은 생일 맞아 특별경계령(1/8, 열린북한방송)**
 - 김정은의 생일 하루 전인 7일부터 이틀간 휴식 있을지 모르는 반대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함.
 - ‘북한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이번 김정은 생일은 작년처럼 임시 휴일로 정하지도 않고 공개 축하행사도 하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졌다”면서 “대신 인민보안부와 국가보위부가 총동원돼 소요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 이동을 통제하고 대대적인 국경지역 단속에 나섰다”고 밝힘. “김정은 생일과 관련해 주민들을 동원하는 공개 행사가 없어도 특별경계령이 떨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반(反) 김정은 정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함.

- **北, ‘검소한 생일은 김정은 뜻’ 선전(1/9, 열린북한방송)**
 - ‘북한 자강도 강계시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생일인 8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토요강연회에서 “김정은이 ‘인민생활이 어렵고 아직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풀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 생일이라고 성대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의 생일을 검소하게 지내라는 방침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힘.
 - 당 비서들이 김정은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내자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이 김정은의 뜻을 수용해 지침을 내렸으며, 강연회에서는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이 이어졌다고 소



식통은 이 방송에 말함.

■ 김정일동향

- 1/ 6 김정일, 조선중앙사진사 일꾼들·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연구사 등에게 감사 전달(1/6, 중방)

나. 경제

● 北, ‘평양10만세대’ 사업 입주율 1.1% 불과(1/3, 조선신보)

- 북한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평양 10만세대 주택건설 사업의 입주율이 작년 말 현재 1.1%(약 1천100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신보는 31일 “평양시 중심부 해방산지구의 신축 아파트 300여 세대에 대한 입주가 끝났다”면서 “이들 아파트는 9층 내지 14층의 7개동으로, 2012년 완공 목표인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일부”라고 밝힘.
- 이어 “170㎡와 140㎡ 두 종류인 살림집 내부에는 공동·개별 살림방, 서재, 부엌, 위생실(화장실) 등이 있다”면서 “2012년까지 보통강 지구에도 이 같은 유형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덧붙임.

● 北식량난 아시아 최악…식량확보율 7.2% 그쳐(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작년 말 현재 북한의 ‘식량확보율’(추가확보 곡물량/부족예상 곡물량)은 7.2%로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낮았다고 보도
- 이 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된 FAO의 ‘작황전망 및 식량상황’ 보고서는 “2011년 11월까지 북한은 외부에서 약 80만t의 식량을 들여 외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작년 말 현재 북한이 (연간 수확량 외에) 추가로 확보한 물량은, 유엔이 지원을 약속한 6만2천t이 전부”라고 말함.
- 북한의 식량확보율 7.2%는 작년 곡물수확량 통계 이후 상업거래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곡물량(6만2천t)을, 올해 11월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곡물량(80만t)으로 나눈 것임.

● 北시장서 ‘김정일 선물’까지 거래(1/4, 자유북한방송)

- 식량난 가속으로 시장에서 개인이 받은 ‘김일성 선물’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
- 함경북도 청진시 통신원을 인용, “주민들이 식량해결을 위해 최근 시장에서 김일성의 명의로 받은 각종 선물과 이름이 새겨진 선물시계까지 매매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식량배급을 하지 않고, 화폐개혁으



로 인해 장사 밀천까지 잃은 주민들이 이제는 가보로 여기던 김일성의 선물도 서슴없이 팔고 있다”고 밝힘.

- “김일성의 이름이 새겨진 선물시계는 시장에서 미화 70~1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전국 어느 시장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함.
 - 이어 “지금 시장에서는 김일성의 초상화 뿐 아니라 ‘김일성 명함시계’와 선물용 가전제품도 팔리고 있는데 당국의 통제에도 매매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당·군 개별기관 對中무역 다시 허용(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제재로 물자난이 갈수록 악화되자 북한이 당·군 산하 개별기관들의 중국 무역을 다시 허용하고 있다고 보도
 - 중국을 방문한 북한 무역업자의 말을 인용, “작년 11월 군과 당 산하에 다시 무역회사를 조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이에 따라 화폐개혁 직후 국방위원회로 통합됐던 무역회사들이 다시 독립적으로 중국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함.
 - 또 “이미 인민무력부의 병기총국과 경찰총국 등에도 무역회사 허가가 떨어졌고 함경북도에만 당 선전선동부 산하 사적지관리국이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 10여 개 무역회사가 생겼다”면서 “이들 회사는 내달까지 서류절차를 끝내고 3월부터 본격적인 무역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임.
- **北, 라선시 투입 건설노동자 선발…경쟁 치열(1/5, 데일리NK)**
- 북한이 최근 중국과 공동개발에 들어가는 라선특별시 건설사업에 투입할 노동자를 내부적으로 선발하기 시작했으며, 북한 주민들은 여기에 뽑히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함.
 - 청진시 소식통을 인용, “지난 3일 청진시 제2금속연합기업소 산하 40여개 기업소의 지배인과 직장장 등은 투입할 인원 확충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면서 “각 기업소 간부들은 더 많은 파견인원을 할당받으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함.
 - 다른 소식통은 “라선시 건설현장에 각 기업소 노동자들이 서로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은 간부를 찾아가 ‘고급담배’ 등을 주면서 명단에 넣어주길 바랐지만, 간부들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선발명단에 넣었다”고 말함.
 - 소식통은 “각 기업소 간부들은 노동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라. 중국은 겉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속은 자본주의다’라고 교양했다”면서 “라선시 건설도 다른 노동자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함.
- **北, 정초부터 장마당 통제로 쌀값 들썩(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연초 ‘저름생산 전투’가 시작되면서 장마당 개장 시간이 대폭 줄어들자 쌀값 등 생필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고 전함.



-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을 인용, “거름생산을 위한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면서 장마당이 오후 4~8시 4시간만 열리자 kg당 1천400원 하던 중국산 쌀값이 며칠 사이 1천600원으로 뛰었다”면서 “이처럼 쌀값이 오르는 것은 식량 부족보다 장마당 통제와 더 연관돼 있다”고 말함.
- 올해도 북한에서는 1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새해 첫 전투’ 기간이 정해져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과 인민반 주민들은 물론 만13세 이상 학생까지 거름생산에 동원되고 있는데, 매일 어른은 50kg, 학생은 20~30kg을 인근 협동농장에 갖다 주고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RFA는 설명
- 량강도 혜산시 소식통은 “구랍 31일 인민폐 1위안이 330원이었는데 3일에는 430원으로 뛰었다”면서 “중국의 물가 상승으로 북한에서 수지를 맞추지 못하게 된 중국 상인들이 많이 철수한데다 장마당 개장 시간까지 짧아져 환율이 오르고 있다”고 말함.

● 北신문, 김정은 생일 전날 ‘CNC’ 선전(1/7, 노동신문)

- 김정은의 생일(1월8일)을 하루 앞두고 ‘CNC’(컴퓨터수치제어)를 선전하는 장문의 글을 실려 눈길, 북한에서 CNC는 김정은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온 세계에 앞서나가리’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을 데리고 구랍 21일(조선중앙통신 보도일) 시찰한 자강도 희천연합기계종합공장을 CNC 실현의 세계적 본보기로 소개
- 이 신문은 특히 올해 28세로 알려진 김정은의 젊은 이미지와 이 공장을 결부시키려는 듯 “최첨단으로 젊어지고 강해지는 내 조국의 걸음을 크게 떠미는 시대적인 걸작품”이라고 선전하면서, CNC와 결부돼 북한 포스터에 자주 등장해 온 ‘세계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되풀이함.
-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부터 전 산업시설의 CNC화를 선전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평양 시내 대로변과 공장, 기업소 등에 ‘CNC’ 관련 구호가 많이 나붙어,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일종의 ‘업적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어옴.

■ 기타 (대내 경제)

- 北 국가우표발행국, 신년 우표(개별우표 1종, 묶음전지 1종) 발행 (1/3, 중통)
-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비동기 전기기관차 ‘선군붉은기1호’ 개발(1/5, 중통)
- 北 국가과학원 미생물학 연구소, 축산항생소 연구개발 성공 보도 (1/6, 중방)



다. 군사

- **北, 노동적위대 ‘軍’으로 개명…위상 강화(1/3, 조선중앙TV)**
 -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에 맞춰 570만 명의 대규모 예비 병력인 ‘노동적위대’를 ‘노동적위군’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
 - 1일 새해를 맞아 당과 국가 책임일꾼이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는 소식과 함께 “김일성 동지의 입상 양옆에는 조선노동당기와 공화국기, 조선인민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전함.
 - 노동적위군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성대한 열병식이 열렸던 지난해 10월 10일부터로 파악됨. 당시 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과 조선인민내무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됐다”고 밝혔으며 이후 노동적위대라는 명칭은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 자취를 감췄고 ‘노동적위군’으로 대체됐음.
 - 노동적위대라는 명칭을 사용된 것은 작년 9월 11일 ‘붉은청년근위대’ 창건 40돌 중앙보고회가 끝이었음.
 - 군 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규 군대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남한 등 외부에 민방위 무력의 차원을 넘어서 정규군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후계자 김정은의 구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중앙통신, 홈페이지에 동영상도 올려(1/4, 자유아시아방송(RFA))**
 - 4일 오전 중앙통신 홈페이지에는 ‘공동사설에 접하고’, ‘새해 맞이한 평양’, ‘새해 첫 출근길오른 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 ‘평양시 군중대회’라는 제목으로 4건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앞의 2건은 1일, 나머지 2건은 3일로 날짜가 표시됐음. 하지만 이들 동영상을 클릭하면 ‘파일이 너무 커 열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만 떴음.
 - 국제정보기업(IDG) 뉴스서비스의 마틴 윌리엄스 도쿄 지국장은 “중앙통신은 언론사에 사진 10장을 제공하고 월 1천달러 정도 받는다”면서 “동영상 파일에 쓰인 기술과 게재 형식을 보면 (외국의) TV방송국에 판매하려는 것 같다”고 말함.
- **北청소년도 마약 중독 심각…단속효과 없어(1/4, 데일리NK)**
 - 히로뽕을 흡입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중학생(우리의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층이 빙두(히로뽕)에 집착해 인생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 당과 사업기관, 교육기관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최근 검열조가 함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여자중학교를 불시에 방문해, 한 학급 학생



들의 가방을 검사해본 결과 50% 이상이 빙두를 흡입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힘.

- 북한 학생들은 휴대가 편한 볼펜이나 고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새겨진 5천원권을 맡아서 히로뽕을 흡입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짐.
- 소식통은 “빙두 흡입기구가 발견된 학생의 상당수가 간부나 부유한 집의 자식들이어서 검열 당국도 골치를 앓고 있다”며 “일부 여학생은 히로뽕을 사기 위해 역전 등에서 몸을 팔기도 한다”고 말함.
- 그는 “최근 재판소에서 다루지는 업무는 가정불화와 마약 관련 사건이 50%를 상회한다”며 “최근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각종 단속반이 늘고 있지만 단속하는 사람도 마약에 중독돼 있고, 간부나 상층부도 마약을 많이 하고 있어 단속 효과가 없다”고 덧붙임.

● 北, 대대적인 탄광 징발로 불만 고조(1/6, 자유북한방송)

- 북한이 연초부터 채탄 광부 징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함.
-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석탄이 짙짙 나와야 비료와 섬유가 쏟아지고 전기와 (철)강재도 만들어진다”면서 “온 나라가 석탄전선을 자기 일처럼 도와 탄부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
-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청장년을 대대적으로 탄광에 진출시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가 4일 각급 당 위원회에 하달됐다”면서 “이에 따라 공장과 기업소 단위로 할당된 ‘탄광진출’ 인원을 징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힘.
- 또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불만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국경지역의 탈북자 가족들이 탄광으로 끌려갈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임.

● 평양서 러시아정교회 성탄 미사 열려(1/7, 연합뉴스)

- 평양 남부 교외의 러시아정교회 성당인 정백사원(성삼위일체성당)에서 성탄 기념 미사가 열렸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함.
- 러시아,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영국, 스웨덴, 스위스 외교관들이 참석
- 이 성당은 지난 2002년 7월 러시아 극동지방 방문 당시 정교회 성당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건립을 시작, 지난 2006년 완공되었음.

● 김정은 생일에 ‘정통성 강조’ 기록영화(1/8, 조선중앙TV)

-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나서 처음 맞는 생일날 김정은의 세습 정통성을 강조한 기록영화(다큐멘터리)가 방영돼 눈길
- 김정은의 생일인 8일 오후 8시25분부터 1시간 분량으로 ‘위대한 영장을 모시여 26’을 방영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을 나란



- 히 거명하고 충성을 다짐한 편지와 메모를 연달아 소개
- 김정은이 김 주석으로부터 시작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선전하고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기록영화를 방영한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 김정은이 수행했다는 ‘동정 보도’ 이외에 북한 매체가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는 것은 이례적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평양시, 1/4 순안구역 등 주변 농촌들에 거름 1만9천t 지원(1/5, 중방)
 - 김정숙평양제사공장과 평양곡산공장의 새해 첫날 계획 각각 130%와 110% 초과 생산(1/5, 중방)
- 北 축구협회, ‘2011년 아시아컵 축구경기대회’(1/7~ 카타르)에 참가할 감독(조동섭, 51세)·선수(정대세 등 23명) 명단 발표(1/6,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印尼 주재 北대사 “남북갈등 亞에 영향 미칠 수도”(1/7,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
 - 인도네시아 주재 정춘근 북한 대사는 “북한은 과거 60년 동안 남한과의 갈등에 대응하느라 지쳤다”며 인도네시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이 7일 보도
 - 정 대사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국회격인 국민협의회(MPR)를 방문, 타우픽 키에마스 MPR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의 갈등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남북 갈등이 즉각 종식돼야 한다”고 밝힘.
 - 정 대사는 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는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北 선양총영사, 지린성 방문 경협 논의(1/8, 길림신문)**
 - 이기범 주선양(瀋陽) 북한총영사가 지난 6일 지린(吉林)성을 방문, 중국 공산당 지린성위원회의 쑤정차이(孫政才) 서기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
 - 이날 면담에서 쑤 서기는 지난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최영림 내각 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이 잇달아 지린을 방문,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를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해 양측간 경



- 제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밝힘.
- 지린성은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건설을 주관하고 있으며 창지투 관문인 훈춘(琿春)·투먼(圖們)과 북한의 라진·청진을 잇는 북-중 광역 경제벨트 건설도 구상 중
 - 이번 면담은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중국이 지난해 12월 훈춘에서 생산된 석탄을 라진항을 통해 남방지역으로 시범 운송한 데 이어 최근 북한과 중국이 라선지구 합작 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것, 때문에 이번 면담에서 창지투와 라진·청진을 잇는 광역 경제블록 건설과 경제 협력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기타 (대외 일반)

- 日 ‘간 나오또’ 내각과 민주당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급락은 “굴욕적인 親美事大정책(‘후덴마’ 미군기지 이설문제 등)이 빚어낸 응당한 말로”라고 嘲笑(1/3, 중통)
- 미국의 對南 ‘핵확장억제력제공’은 “對北 핵선제 타격을 위한 수단”이며 이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겨누고 있다”고 선동 및 ‘對南 핵무기 철수’ 주장(1/3, 중방)
- 日本의 韓國戰 참전 범죄행위 비난 및 “미제가 일으키는 제2조선전쟁에 가담한다면 과거 죄악을 합쳐 그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주장(1/4, 평방)
- 김영남, 이집트 폭탄테러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전문(1/4, 중통)
- 김영남, 離任방문 駐北 체코대사와 담화(1.6, 중통·평방)
- 駐北 各國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 등, 은하수관현악단의 新年 경축음악회(만수대에술극장) 관람(1/6, 중통·평방)

3. 대남정세

● 北, “한반도 안보위기, 남한이 초래”(1/3, 평양방송)

- 새해 국정지표로 ‘경제와 안보’를 역설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나온 3일 북한은 한반도 안보위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비난 공세를 이어감.
- 이날 오후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는 안보소동’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조선반도에 안보위기가 있다면 미국, 일본 같은 침략적 외세와 야합해 군사적 도발을 강화해온 남조선 괴뢰들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
- 특히 구랍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에 대해 “남조



선 괴뢰들이 그 누구에 의한 안보위협을 떠드는 것은 말도 되지않는 생역지”라고 비난

- 또 “우리 공화국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으나 남조선 집권패당은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며 북남 관계를 파국상태로 몰아넣었다”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의 엄중한 군사도발에도 무력충돌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자제와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

● **北신문 “북남대결 해소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1/5,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남대결 상태의 해소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차적 요구”라고 거듭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논설은 “대화도 접촉도 협력도 없는 대결과 전쟁접경 상태에 북남 관계가 처해 있는 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성사될 수 없고 평화도 유지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

● **北, “비방 중단하고 당국 회담 무조건 열자”(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대결 해소’를 촉구한지 나흘만에 다시 남북 당국간의 무조건적 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나섬.
- 북한의 이번 제안은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형식으로 나와 주목됨.
-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발표,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면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해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어 “북과 남이 마주 앉으면 오해와 불신도 풀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
- 또 “우리는 북남 관계를 풀기 위해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어떻게 하든 6.15의 흐름을 이어나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연대로, 통일과 번영의 연대로 빛내야 한다”고 덧붙임.
- 성명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제기한다”면서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은 북남 관계를 해치는 불씨고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라고 말함.



- **北신문, 당국간 회담 제안 ‘연합성명’ 대서특필(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5일 밤 남북 당국간의 무조건적 회담을 제안하며 내용은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에 대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매우 상세히 기사를 다뤄 주목됨.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1면에 연합성명의 전문을 싣고, 논설 등 3건의 별도 글을 통해 성명의 취지와 의미 등을 자세히 분석함.
 - 5면에 실린 ‘조국통일의 길은 대화와 협력에 있다’라는 제목의 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남 관계의 개선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며, 북남 관계를 불신과 대결’에서 ‘신뢰와 화해’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
 - 또 ‘북남관계 개선은 현실의 절박한 과제’라는 제목의 논설은 “북남 대화와 협력을 떠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생각할 수 없다”면서 “민족 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 이어 “대화와 협력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성의와 아량으로 차이점을 미루고 공통점을 찾는 데로 지향돼야 한다”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올해 북남 대화와 협력 사업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하고, 폭넓은 협상과 다방면적인 합작,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北대남기구 관리 “남과 긍정적 대화 원해”(1/6, 연합뉴스)**
 - 북한이 남한에 당국 간 무조건적 회담을 제안한 다음 날인 6일 북한 대남기구의 한 관리도 남한과 대화 필요성을 강조
 - APTN의 평양발 보도에 따르면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김원호 참사는 북한 정부가 남한과 “긍정적인 대화”를 원한다면 남북관계는 “현재 최악”이라고 지적
 - 이어 “남북관계 문제는 결코 대결로 풀릴 수 없고, 대화와 협상만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함.

- **北제의, 영도자 결단…진정성 접수해야(1/6, 조선신보)**
 - ‘평화통일의 연대기 열기 위한 중대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화과 협상에 관한 파격적인 제의는 영도자의 결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연합성명에 담긴 메시지는 더 이상 북남간에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
 - “연합성명은 북남 당국간 무조건적인 회담의 개최를 주장하고 대화 의제도 특정하지 않은 채 열린 자세를 표명했다”면서 “이는 대북 대결노선에 매달려 대화를 꺼려온 남조선 당국의 처지와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
 - 또한 ‘북과 남이 대결과 논쟁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연합성명의 구절을 거론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연합성



명에 담긴 진정성을 접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남조선 당국이 결단을 내릴 차례”라고 말함.

- 이어 “연합성명의 중대제안은 눈앞의 현실에만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다”라면서 “조선은 평화와 통일의 요건을 타산하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10년대를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임.

● 北선전매체 게시판에 ‘김정일미친X’ 비방시(詩)(1/6, 자유북한방송)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게시판에, 각 행의 첫 글자를 잇는 교묘한 방식으로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가 올려져 보안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짐.
-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구랍 21일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의 ‘독자마당’ 게시판에 12행으로 구성된 시 한 편이 올라왔는데, 그냥 보면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각 행의 첫 글자만 이으면 ‘김정일미친X 김정은 개XX’라는 욕설로 읽혀진다는 것임.
- 이 시는 이튿날 밤 10시까지 방치돼 수 백명이 읽은 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짐.
- 자유북한방송의 한 통신원은 “300명 이상 읽어본 뒤 삭제됐는데 읽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매우 정교하게 잘 쓴 시여서 (비방글인지)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다고 한다”고 말함.
- 문제의 시가 삭제되고 이틀 뒤 중국 선양(瀋陽)으로 급파된 북한 노동당 김열단은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운영을 맡아 온 ‘조선6.15심양봉사소’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곧 관련자들이 본국으로 소환돼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원은 덧붙임.

● 北선전 트위터에 김정일 비난 글 올라(1/8, 연합뉴스)

-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자신들이 해킹한 것으로 주장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운영하는 트위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을 비난하는 여러 건의 글이 잇달아 올라온 것으로 확인
- ‘김정일 력도(역도)와 아들 김정은을 몰아내 새 세상을 만들자!’, ‘조선인민군대여! 핵과 미사일 개발에 14억달러를 낭비(낭비)한 김정일 역도에게 총부리를 겨누자’, ‘우리도 남녘의 인민들처럼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300만 인민이 굶어죽는데 초호화 별장에서 술파티를 벌이고 있는 김정일을 처단하자’는 내용의 글 4건이 올라옴.
- 게시자가 ‘uriminzok’(우리민족)으로 돼 있는데, 김정은 생일인 이날 오전 7시20분께 올라온 것으로 확인
- ‘우리민족끼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도 김정은이 스포츠카를 몰다가 사람들을 친 후에 ‘인민들은 다 쓸모없어’라고 말하는 내용의 패러디 동영상(약2분 분량)과 북한을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옴.



- **北조평통, ‘당국회담 무조건 개최’ 거듭제의(1/8, 조선중앙통신)**
 - “북남 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면서 “당국 회담의 급과 장소,시일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 담화를 발표,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한다”면서 “회담대표단은 종전대로 하든지 새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장소는 개성으로 하고 날짜는 1월말 또는 2월 상순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함.
 - 이어 “대화의 문을 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폐쇄된 판문점 북남적십자통로를 다시 열며 개성공업지구의 북남경제협력협회사무소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측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들이 곧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북남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도 우리측 관계자들을 파견하여 상주시킬 것”이라고 말함.
 -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우리의 대화 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진의를 의심할 것도 없다”고 강조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5일 연합성명 때보다 제안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라며 “북측이 제안한 내용과 의도, 배경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함.

- **‘해킹’ 논란 대남선전 北사이트 복구, 남북대화 촉구 기사 20여건 한꺼번에 게시(1/9, 연합뉴스)**
 - 국내 네티즌들이 북한 후계자 김정은의 생일(1.8)에 맞춰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8일부터 접속이 되지 않았던 이 사이트가 9일 오후 10시께 복구
 - 노동신문의 8~9일자 기사와 자체 논평 등 약 60건의 게시물을 한꺼번에 올렸으며 이 가운데 20여건의 기사에서는 남북 당국간 회담의 무조건적 조속 개최를 촉구한 연합성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화와 협상을 촉구
 - 사이트 복구에도 ‘우리민족끼리’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에 8일부터 게시된 김 부자 비방글 4개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며, 이 역시 국내 네티즌들이 해킹한 것으로 추정됨.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에서 접근이 금지된 사이트이지만 8일부터는 우회접속도 되지 않았고, 국내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들은 사이트를 해킹해 김정일 부자를 비방하는 글과 그림을 게시했다고 주장)



■ 기타 (대남)

- 국방부 '2010 국방백서'('北의 정권과 군대는 우리의 적' 表記) 발간 관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선언, 북침야망의 발로" 라고 비난하며 "대결과 전쟁은 파멸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위협 (1/4, 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日 “北 비핵화 조치 강력 촉구”(1/7)

-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7일 발표했다.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일본 외무성 차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음.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한·중·일 3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에 도착, 사사에 차관에게 한국과 중국 관리들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소개했음.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사사에 차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반도의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일본 관리들과의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음.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관방부장관과도 만나 북핵 현안을 논의했음. 미·일 양국 고위 관리들은 이번 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재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됨.
- 한반도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4명의 한국인을 희생시키고 최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화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12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해 왔음. 한국과 미국, 일본은 그러나 북한이 도발행위를 먼저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 日외상 “北 행동 보여야 6자회담 재개”(1/7)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은 6일 북핵 문제와 관련,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나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그전에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확고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 미국을 방문 중인 마에하라 외상은 이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기에 앞서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에서 한 강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가 주요 우려의 원인”이라면서 이같이



- 지적했음. 그는 그러면서 “남북한 사이의 대화가 열려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이 먼저 확고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마에하라 외상은 통역을 통한 질의응답에서는 지난해 5월 천안함 침몰과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이 “최근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음. 또 지난 1970~8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태가 일본과 북한 사이의 장기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한편 마에하라 외상은 미일 관계와 관련, 안보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분야에서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급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는 아울러 지난해 체결 50주년을 맞은 미일 안보조약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중국의 패권주의를 겨냥, “우린 아태지역을 헤게모니 대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키는 게 역내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과 때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기본 철학 하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 中, ‘北 대화제의’ 지지입장 밝혀(1/6)

- 중국 정부가 6일 북한의 남북대화 개최 제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줄곧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유일하고 유효한 길이라고 여겨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홍 대변인의 이 발언은 북한이 5일 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형식으로 남북 당국 간의 조건 없는 회담 개최를 제의한 데 대한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여 주목됨.
-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유관 각 측이 접촉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이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해가는데 건설적인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북핵 6자회담이 정지된지 이미 2년이 됐고 이제는 유관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하루빨리 6자회담을 재개하고 대화를 진전시켜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실천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北UEP 규탄문건 안보리서 채택되나>(1/6)

-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문제가 이번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임. 정부 당국자는 6일 “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UEP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1월에 안보리 회의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사국들이 UEP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전날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간 회동



에서 안보리에서 UEP를 논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 당국자들은 위 본부장과 보즈워스 대표의 회동과 관련, “북한의 UEP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재논의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해왔음.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UEP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이나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UEP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한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보리가 북한을 명시적으로 규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됨.
- 안보리는 지난 해 11월 북한의 UEP 문제를 논의하다가 관련국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 달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상태와 관련해 안보리에 제출한 의장성명 초안에는 북한의 UEP나 연평도 포격이 언급되지 않았음.

● 한·미 “남북관계 진전 선행돼야 6자재개”(1/5)

- 한·미 양국은 5일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했음.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음.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진전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회담 재개의 여건을 만들어나간다는 입장을 한·미 양국이 재확인했다”며 “6자회담이 상대에 의해 오·남용되어서는 안되며 생산적 대화가 되도록 준비와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당국자는 이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려면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대화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말했고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북핵 분야에 국한해서 말하면 전제조건은 없다”고 답했음.
- 양측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6자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어서는 안되며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양측은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 대화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음.
- 양측은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 등 국제규범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음.
-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UEP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이 심각하다는 주제를 먼저 꺼냈다”며 “기존



-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안인 만큼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일차적이지만 안보리 외의 장(場)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이날 6자회담 재개조건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는지 여부에 대해 “과거에 논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공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오는 19일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극적인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음.
 -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논의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막아야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공동대처하자고 얘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보즈워스 대표가 전날 입국한 뒤 “합리적으로 이른 시기에 진지한 협상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누구나 대화와 협상 옵션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본부장과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 이어 오찬을 함께 하고 북한의 신년사설에 대한 평가 및 핵활동 정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 보즈워스-위성락 회동..6자재개 조건 협의(1/5)

-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회동했음. 이번 회동은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 재개에 관한 밑그림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성격을 띤 것으로 알려져 양국의 조율 향배가 주목됨.
- 보즈워스 대표와 위 본부장은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취해야할 비핵화 이행조치의 내용과 수위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앞으로의 수순과 사전정지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상파로 알려진 보즈워스 대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을 듣고, 이에 대한 미국측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행해야할 비핵화 이행조치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등을 검토 중임.
- 두 사람은 또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의 사전정지 차원에서 남북간 대화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



환한 것으로 알려졌음.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마련될 경우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이를 북측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보즈워스 대표는 위 본부장과의 회동 직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했으며 오후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보즈워스 대표는 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장관이 “한국민들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한·미 간에 매우 강한 우호관계와 정책공조가 형성돼있음을 한국민들이 확신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김외교 “6자회담 재개 위해선 남북대화 필요”(1/5)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6자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용한 협상 틀이지만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비롯한 올바른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 한국외교협회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 참석, 2011년 외교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 이어 그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되면 정부는 그랜드 바겐 구상에 입각해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와 대북 안전보장, 경제·에너지 지원 등 5자의 상응조치를 단일합의로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 장관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강조했다”면서 “대결과 반목의 막다른 길을 택할 것인지, 평화와 번영의 길을 택할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 그는 “올해에도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두 트랙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대화 위한 대화 원치 않는다”(1/5)

- 미국은 4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하지 않으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포함한 북한으로부터의 구체적 조치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직후 내놓은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된 언급과 관련, “우리는 단순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상을 적절히 이르지 시기에 기대한다’는 보즈워스 대표의 언급에 대해 “그것이 보즈워스가 한 정확한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지한 협상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북한



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여러번 밝혔던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가 건설적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런 언급은 보즈워스 대표가 인천공항에 입국한 직후 “진지한 협상들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믿으며, 적절한 이른 시기에 진지한 협상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이 대화 쪽으로 완전히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에 제동을 걸려는 차원으로 풀이됨.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도발 중단, 2005년 공동성명 의무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구체적인 일들을 북한으로부터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보즈워스 대표가 구체적 리스트를 갖고 서울에 도착하지는 않았다”면서 “남북간의 대화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다자 및 양자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하지만 양자든 다자적 대화이든 간에 그런 대화가 건설적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즈워스 대표의 이번 한·중·일 방문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보즈워스 “협상이 北 다루는 전략의 핵심”(1/4)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일 “우리는 진지한 협상들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strategy)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북핵 문제 협의차 1박2일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적절히 이른 시기에 그런 것들을(진지한 협상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협의하고 조정하려고 왔다”며 “나는 이번 방한에서 말하기보다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 여부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체로 중국과 매우 효과적으로 함께 해왔다고 생각하고 양국관계는 중요하다”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반도에서 공통의 이익이 많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no)”라고 짧게 답했고, 북한에 제시할 6자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내 주머니(pocket)에는 조건이나 목록(list)이 없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에는 성 김 북핵 6자회담 특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5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고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과 수순 등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협의한 뒤 오후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게 됨. 보즈워스 대표 일행은 방한일정을 마친 뒤 중국과 일본도 차례로 방문해 각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핵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보즈워스 ‘도어스텝’ 생략..“민감한 협의”>(1/4)

- 4일 방한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간 관례화 되다시피 해온 국내언론과의 약식 기자회견을 생략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보즈워스 대표는 5일 김성환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할 예정이나 그 결과를 언론에 소개하는 ‘도어스텝’(공개된 장소에서 언론취재에 응하는 절차)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음.
- 보즈워스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대북 특사로 임명된 이후 수차례 서울을 찾았고 그때마다 도어스텝을 통해 우리 정부와 조율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해왔음. 주한 미국대사관측은 “미 국무부로부터 그 같은 방침이 정해져 통보가 왔다”며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전부”라고만 밝혔음.
- 외교가에서는 보즈워스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최근 복잡미묘한 흐름을 보이는 6자회담 재개 논의와 맞물려 있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특히 보즈워스 대표의 이번 방한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들고 관련국들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사안의 성격상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도 조율을 해야할 사항이어서 가급적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게 낫다는 상황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임.
- 이와 맞물려 보즈워스 대표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잠정 협의’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옴. 보즈워스 대표가 한·중·일과의 협의결과를 워싱턴 본부에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진전된 방안을 갖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을 다시 보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음.
- 한 외교소식통은 “보즈워스 대표의 이번 방한은 6자회담 재개의 최종 그림을 그리기 위해 5자협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차원으로 봐야한다”며 “그만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음.
- 일각에서는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 보즈워스 대표가 언론과의 회견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만한 내용을 언급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한·미간에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 보즈워스 오늘 오후 방한..6자재개 협의(1/4)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4일 오후 북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함. 보즈워스



대표는 5일 오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 외교부 관계자는 “위 본부장과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과 수순 등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은 오는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 재개조건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적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됨.

● 스트로브 “北, 아직 핵포기 준비 안돼”(1/4)

-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올해 상반기 6자회담이 열릴 수도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6자회담 재개가 아니라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갖고 있는냐”라면서 “아직 북한은 핵을 포기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전했다.
- 스트로브 부소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은 핵카드를 활용해 북미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의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를 벌려 놓으려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면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그는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3차 핵실험이나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열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음.
- 그는 또 미국이 북핵 문제의 ‘부분적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과거 북미 양국이 그와 유사한 제네바합의를 맺었지만 북한은 합의 뒤에 숨어 핵개발을 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그런 해결 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일축했음.
- 그는 최근 방북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북한의 의향을 전한 것과 관련, “IAEA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사찰단을 보내는 것은 실수이며,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핵시설만 보는 ‘부분적 핵사찰’은 의미가 없다”면서 “2009년 4월 IAEA 사찰단이 영변에서 철수한 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설치한 것만 봐도 북한의 다른 지역에 분명 핵시설이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남북대화 통해 6자회담 재개 조건 제시”(1/4)

- 정부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북측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일·중·러를 상대로 6자회담 전제조건을 확정짓기 위한 ‘5자 협의’를 긴밀히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핵심당국자는 이날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이라는 데 5자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5자협의 등을 통해 6자회담 재개조건이 만들어지면 이를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남북대화 테이블에 북핵을 의제로 올리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구랍 29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정부는 현재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협약 등을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 내용이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일정정도 진전되고 북한이 회담재개 전제조건을 충족한 이후 6자회담 틀내의 북미대화와 북일대화 등의 양자접촉을 거쳐 6자회담이 재개되는 수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희망하는 북·미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와 관련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북한에 전략적 인내해야”(1/8)

- 미국은 7일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에 앞서 북한이 대화가 건설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전략적 인내’에서 대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여러분이 북한 문제를 다룬다면, 전략적 인내를 가져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명확히 밝혔던 것처럼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마주보고 하는 논의들(face-to-face discussions)이 건설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중·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면서 마지막 순방국인 일본 방문 기간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차관 등과 면담을 가졌으며, “한반도 문제의 다음 조치들을 정하기 위한 매우 유용하고 생산적인 논의들을 했다”고 덧붙였다.
- 이 밖에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간의 전날 회담에서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은 안보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언급했다고 전했다.

● “美, 대북기조 대화 쪽으로 전환”(1/8)

-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가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중·일 방문을 계기로 대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각) 베이징발로 보도했음. 이 신문은 중국을 방문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조만간 시작됐으면 좋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했다고 중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 대북 정책과 관련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이런 언급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견지해 온 ‘전략적 인내’ 접근 방식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 미국은 오는 18일 이뤄지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음.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이 호전적 행동 포기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최근 보여주고 있는 유화적 태도에 진정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는 한국에는 좀더 포용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정중히 권하고 있음.
- 워싱턴포스트(WP)도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성 김 북핵특사가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중국의 당국자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미·중 협의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각국과 의견조율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전했다.
- 미 국무부 당국자들은 미·중 양측이 ‘유용한 협의(useful consultation)’를 했다고 전했다. 보즈워스 대표 등이 지난달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내용을 파악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수전 솔티 “美하원 외교위와 北청문회 협의중”(1/5)

- 대북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가 “이달 말이나 2월 중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주최로 북한 관련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 솔티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하원 외교위 관계자들과 북한 관련 청문회 개최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또 “쿠바 난민 출신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공화당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장이 됐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면서 “2011년은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 가능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 북한자유연합은 4월 말 서울에서 ‘제8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열고, 대북 선교단체 ‘318 파트너스’는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는 ‘엔케이 다이렉트(NK DIRECT)’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임.
- 또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링크(LiNK)’는, 지난해 중국 내 탈북자 13명을 구출하고 동남아시아에 탈북자 보호시설 2곳을 세운 ‘9달러 생명’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VOA는 전했다.

다. 중·북 관계

● 北 선양총영사, 지린성 방문 경험 논의(1/8)

- 이기범 주선양(瀋陽) 북한총영사가 지난 6일 지린(吉林)성을 방문, 중국 공산당 지린성위원회의 쑨정차이(孫政才) 서기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길림신문이 8일 보도했음.
- 이날 면담에서 쑨 서기는 지난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최영림 내각 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이 잇달아 지린을 방문,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를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해 양측간 경제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 쑨 서기는 “지린성은 조선과의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김 국방위원장의 방중 당시 양국 정상이 이룬 공감대에 따라 경제 협력을 개척, 발전시켜 쌍방 간 우의를 다지고 더 많은 성과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쑨 서기는 9월 창춘(長春)에서 열리는 제7회 동북아투자박람회에 북한이 참석해줄 것도 요청했음. 이 총영사는 “지린은 우리와 접해 있어 조중(朝中)우의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린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방면에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우호 교류의 새로운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 면담은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중국이 지난해 12월 훈춘에서 생산된 석탄을 라진항을 통해 남방지역으로 시범 운송한 데 이어 최근 북한과 중국이 라선지구 합작 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것임. 이 때문에 이번 면담에서 창지투와 라진·청진을 잇는 광역 경제블록 건설과 경제 협력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6일 “친정가오(陳政高) 라오닝(遼寧)성장이 지난 4일 선양 주재 조선총영사에게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점으로 미뤄 춘제(春節)를 앞두고 이날 쏜 서기가 김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선물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있음.

● 中, 北라진항 통한 석탄 남방운송 착수(1/3)

- 중국이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북한 라진항을 통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남방 운송에 착수했음. 이는 다롄(大連)의 환경설비 제조업체인 창리그룹이 북한으로부터 2008년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획득한 지 2년여 만의 일이며 중국 동북지역 물자가 라진항을 거쳐 남방으로 운송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 3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와 훈춘(琿春)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훈춘에서 생산된 석탄 2만t이 시범적으로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의 통관을 거쳐 북한 원정리를 통해 라진항으로 운송됐다. 라진항에 도착한 석탄은 컨테이너로 재포장돼 배편으로 상하이로 운송됐음.
- 훈춘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시작해 며칠에 걸쳐 35t급 화물 트럭 570여 대가 2만t의 석탄을 라진항으로 실어날랐으며 라진항에서 운송선을 이용, 동해 항로를 통해 상하이로 운송됐다”며 “이번에 시범 운송된 석탄은 훈춘광업그룹이 생산한 것”이라고 밝혔음. 이 관계자는 “시범 운송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올해부터 라진항을 이용한 동북 지역 지하자원과 곡물의 남방운송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훈춘의 한 소식통은 “석탄을 싣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트럭 때문에 한동안 취안허 통상구 주변 도로가 석탄가루로 시커멓게 뒤덮혔다”며 “취안허통상구가 문을 연 이래 북한으로 넘어간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말했음.
- 연변자치주 관계자는 “라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가 가동되면서 훈춘 광업그룹이 상하이 뿐 아니라 안휘이(安徽), 산둥(山東) 등 중국 동부 연안지역 기업들과도 석탄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그는 “그동안 내륙 철도를 이용하거나 라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항까지 육로로 수송한 뒤 해상 항로를 이용, 남방으로 운송해야 했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커 두만강 유역 지하자원과 곡물이 남방으로 대량 운송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며 “라진항 뱃길이 뚫리면서 동북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남방의 공산품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38만㎡ 규모의 라진항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중국은 라진항을 통한 동해 항로가 활성화하면 두만강 유역뿐 아니라 내이명구(內蒙古)와 몽골의 지하자원 개발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임.
- 이에 앞서 창리그룹은 2008년 북한으로부터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2009년 이 부두의 정박지를 보수하고 확장해 연간



100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췄음. 연변주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노후한 취안허-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를 보수했으며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5월 훈춘-라진-상하이 항로 개설을 승인하는 등 라진항을 통해 동해 항로 개통에 대비해왔음.

- 창리는 애초 두만강대교 보수 작업이 완료된 지난해 7월부터 라진항 항로를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지연돼 한때 항구 운영을 둘러싼 북-중 갈등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음.
- 중국은 라진항을 이용한 운송 물량 확대를 위해 기존 두만강대교를 대체할 신두만강대교와 원정리-라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상무부가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라선지구의 부두와 도로, 정유시설을 합작 개발키로 합의하는 등 라진항을 임대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와 라진·청진을 잇는 북-중 광역 경제블록 건설도 구상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외상 “북한과 직접대화 환경 구축 중요”(1/5)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 북한과 직접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 5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마에하라 외무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6자회담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올해 하나의 큰 테마로서 일본과 북한간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음.
- 그는 “일본의 주권에 관련된 납치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6자 회담 등 다자 회담에서만 북한 문제를 다루지않고,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양국간 직접대화가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이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미국이나 한국, 중국에만 의존하지않고 직접 구축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됨.
- 마에하라 외무상은 작년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최근 2년간 중단된 북한과의 공식 대화에 대해 “국교가 없어도, 양국 간 현안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개 의욕을 보였다. 그는 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러가지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2011년)에는 실무자에 의한 공식 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음.

마. 기 타

● “러시아, 北식량지원에 300만달러 기부” < VOA >(1/7)

-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사업이 자금난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사업에 미화 300만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전했다. 클라우디아 폰 로엘 북한주



- 재 WFP대표는 방송에 “러시아가 지난해 성탄절 직전 300만달러 기부를 약속해서 연초에 이 지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 WFP는 지금까지 대북 사업과 관련해 브라질,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과 유엔으로부터 1천845만달러를 기부받았으나,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잡혀 있는 이 사업 예산(9천600만달러)의 19%에 불과한 액수라고 VOA는 설명했다.
 - 로엘 대표는 “현재 비축분으로는 3월까지만 북한에 식량을 분배할 수 있다”면서 “지원금 부족으로 ‘식량지원 취로사업’은 진행하지도 못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와 산모, 수유모에게만 영양강화 식품을 제공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식량지원 취로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기반시설 건설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곡물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 그는 또 “북한에서는 지난해 흉수 등의 이유로 채소 작황이 좋지 않았다”면서 “이번 겨울에 특히 김장 김치 부족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10월 평양에 부임한 로엘 대표는 “지난 3개월 동안 평양에서 청진까지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많은 어린이가 기아와의 싸움에서 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이 제대로 먹지 못해 키가 자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美언론, 새해 한반도 대화 가능성에 촉각>(1/3)

-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북한의 공동사설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올해 한반도에서의 대화 가능성에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 CNN 방송은 이 대통령이 3일 신년연설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안보 태세를 다시 성찰하고 전면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 특히 “9.11테러를 맞아 미국은 자신의 안보전략과 국가전략을 다시 짰다”는 연설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대통령이 연평도 도발을 ‘변화의 기회’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 CNN은 아울러 이 대통령이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와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말과 행동으로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한 북한 관리들이 최근 남한을 향해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관계 개선과 대화,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이 대통령이 미국의 9.11테러 대처와 연평도 도발 후 남한의 대응을 견주면서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WSJ는 동시에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한이 외세와 함께 “북침 전쟁도발 책동”을 벌



였다면서 연평도 사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대남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음.

- 더불어 북한이 올해 공동사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해 “북남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지난해 사설에서보다 ‘강력한 발언’을 내놨다고 분석했음. WSJ는 그러나 올해에는 남북 긴장을 표현하면서 지난해 공동사설에서 볼 수 없었던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 폭스뉴스는 AP 통신을 인용, 이 대통령이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줬다는 점에 주목했음. 폭스뉴스는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남한의 방위력 강화와 추가 도발시 강력 응징을 약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남북 대화와 평화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폭스뉴스는 북한 역시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 관계개선과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핵 참화”를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고 지적했음. 이 방송은 나아가 미 국무부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트 게이츠 장관의 한·중·일 순방 계획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찾기 위한 외교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 中언론, 李대통령 ‘대화 의지’에 관심(1/3)

- 중국 언론은 3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특별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보도했음.
-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소개했음.
- 신화통신은 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도 전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도 관련 기사에서 신화 통신과 같은 제목을 선택해 한국의 ‘대화 의지’를 부각시켰음.
- 중국신문사는 이 대통령이 북한이 한국 영토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한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음.
- 그러면서도 중국신문사는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앞서 중국 언론매체들은 지난 2일



북한이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한 대결상태의 해소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데 대해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을 기대하게 한다고 논평했음.

● 日 언론 “李대통령 대북 강경자세에 변화”(1/3)

- 일본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부분을 부각시켰음.
- NHK방송은 “이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과 관련 안전보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경우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면서 대화에 의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 방송은 이 대통령이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않았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음.
- 방송은 이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한 자세로 일관했으나 새해를 계기로 보다 유연한 자세로 전환한 것을 보인다고 분석했음. 방송은 “이 대통령의 자세 전환의 배경에는 지금 상태로 긴장이 고조되면 전면 충돌로 발전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여론이 자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교도통신도 “이 대통령이 북한의 새로운 무력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한 편으로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의 포기를 요구했다”면서 북이 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했음.
- 교도통신은 “이는 북한 매체들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결자세의 철회와 대화재개 등 관계개선을 요구한데 대해 이 대통령이 방위체제를 강화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굴하지않겠다는 자세를 재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핵 폐기에 응하도록 촉구한 모양새”라고 해석했음.

● 러 언론도 李대통령 대화 의지에 관심(1/3)

- 러시아 언론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사실에 관심을 보였음.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날 도쿄발로 이 대통령의 신년 연설 내용을 타전하면서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해빙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음.
- 통신은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현지 라디오방송 ‘라디오 스바보다(Radio Liberty)’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이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신속히 소개했음. 방송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앞서 1일 남북한 대결 상



태의 해소를 호소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뒤이어 나왔음을 지적하며, 새해 들어 잇따라 나온 양측의 유화적 입장 발표에 앞서 남북한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무력 충돌 위기에까지 갔었다고 소개했음.

- 방송은 또 이와 관련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주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해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 다른 라디오 방송 ‘루스카야 슬루즈바 노보스테이(러시아 뉴스 서비스)’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덕수 “한미FTA 6월말까지 비준기대”(1/9)

-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6월 말까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한 대사는 이날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농업인연맹(AFBF) 연차총회에 참석해 행한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오바마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 법안을 의회에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한 대사는 이어 “미국의 900여개 기업과 단체 및 상공회의소 등이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AFBF 등 농민단체들이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해준데 감사하며, 조기에 비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음.
- 그는 “한미 FTA가 발효할 경우 미 상무부는 미국내에서 7만여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의 대미수출은 70억달러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한국수출은 이보다 40억달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관세 측면에서만 보면 한국보다 미국에 더 유리한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 대사는 “한미 FTA 보완 협상은 양국에 모두 매우 어려운 과제였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를 타결시키기로 결심했으며, 결국 작년 12월초 타결됐다”고 설명한 뒤 “새로 선출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미 FTA가 지역에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이어 “한미 FTA 협정의 타결에 따라 미국 산업중 농업분야만큼 혜택을 볼 분야도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작년에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50억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한 가운데 미국산 농산품에 부과하는 한국의 관세가 60%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음.



- 특히 “한미 FTA 협정이 발효하면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금류 수출이 21억달러 증가할 것이며, 2만7천여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하지만 한국이 현재 주요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 및 캐나다와도 FTA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 국가와의 협정은 발효하고 한미 FTA는 발효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증가는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기 비준을 촉구했음.
- 한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거론한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해외 수출 가운데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2009년 한국의 수입 쇠고기중 미국산 쇠고기는 37%를 차지해 호주 다음으로 많은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음.
- 한 대사는 앞서 밥 스톨만 AFBF 회장과 만나 한미 FTA 조기비준을 위한 농민단체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저녁에는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행사에도 참석해 격려했음.

● <주한 美대사 후임 놓고 외교가 설왕설래>(1/7)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의 후임으로 조 도노반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자 국내 외교가의 반응이 미묘함. G20(주요 20개국) 이후 높아진 한국의 국격과 ‘사상 최고’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을 고려할 때 이제는 주한 미국대사의 ‘격(格)’을 한단계 높일 시점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임.
- 도노반 수석 부차관보는 미 국무부 직제상 ‘deputy assistant secretary’로 우리 정부부처의 국장에 해당한다. 주요 현안을 논의할 때 우리측의 카운터파트는 주로 외교통상부 김형진 북미국장과 김홍균 평화외교기획단장임. 미 국무부는 장관(secretary) 아래 deputy secretary(부장관), undersecretary(차관), assistant secretary(차관보), deputy assistant secretary(부차관보)의 직제로 편성돼있음.
- ‘세계 외교의 사령탑’으로 불리는 미 국무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부차관보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직급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게 사실임. 그러나 ‘격’ 자체가 중요시되는 대사임명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어떤 직급의 인물을 보내느냐에 따라 정치적 의미가 달라지고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임.
-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씨를 주미대사로 보낸 점을 상기시키며 “우리만 너무 신경쓰고 있는게 아니냐”는 소리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들은 과거의 전례와 미 국무부의 인사관행을 감안할 때 수석 부차관보급의 주한 미국대사 기용은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당장 한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며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는 스티븐스 대사는 도노반 수석 부차관보의 바로 전임이다. 또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 역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였고 2004년 임명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이듬해 4월 국무부 차관보로 승진했음. 힐 대사에 이어 2005년 부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만이 차관급에 해당하는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음.

- 외교 당국자는 7일 “그동안 주한 미국대사는 직업외교관과 관료출신, 학자 등이 주로 기용돼왔다”며 “이중 직업외교관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는 수석 부차관보이며 차관보부터는 정무직이어서 이를 두고 격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특히 “직급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또 얼마나 열의를 갖고 임무에 임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특히 도노반 수석부차관보의 경우 1990년대 한국에서 근무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음.
-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최근 한반도 상황의 엄중성과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한 미국대사에 ‘힘있는’ 정무직 인사(Political Appointee)가 기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한 외교소식통은 “전형적 직업외교관 출신들이 실무적 능력을 발휘하며 복잡한 양자현안들을 순조롭게 해결한다는 평이지만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이 수뇌부 차원에서 긴밀한 호흡을 맞추려면 ‘정무형 대사’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말했음.

● <보즈워스, 현통일 예방..대북정책 타진>(1/5)

-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음.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남북관계 주무부처의 장이 만났다는 점에서 이날 면담은 특별히 주목을 받았음.
- 통일부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이날 면담을 비공개로 하는 한편 면담 내용에 대해서도 말을 극도로 아꼈음. 다만 이날 오후 2시부터 45분간 이뤄진 면담에 대해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는 짤막한 보도참고 자료만 내놨음.
-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즈워스 대표는 면담에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느냐”며 북한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대해 현 장관은 북한 동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전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



관계의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중을 중심으로 6자회담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원칙만 고집하다 소외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보즈워스 대표가 한중일 순방에 나선 것 자체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여권 관계자는 “언제까지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태로 갈 수는 없다. 대화를 해야 북측에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왕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보즈워스 “서울-보스톤 날씨 매우 비슷해”>(1/5)

-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회동한 자리에서 ‘날씨’를 놓고 대화를 주고받아 눈길을 끌었음. 이날 면담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부분에서 위 본부장은 보즈워스 대표에게 인사말을 건네면서 “서울 날씨가 어떻느냐”고 물었음.
- 그러자 보즈워스 대표는 예의 신중한 태도와는 달리 “보스톤 날씨와 매우 비슷하다(very similar)”면서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오지 않았다면 매사추세츠주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답했음.
- 이를 두고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보즈워스 대표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한·미간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 언급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보즈워스 대표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굳건한 한·미공조를 강조했다. 김 장관이 “어제 공항에 나온 많은 취재진의 모습이 한국인들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자, 보즈워스 대표는 “이해한다”면서 “나는 그것이 한·미간 매우 강한 우호관계와 정책공조가 형성돼 있음을 한국인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 외교부 “한미FTA 조문화 작업이 급선무”(1/5)

-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위한 진행 상황과 관련, “지금은 조문화 작업이 제일 급선무”라며 조문화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안 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최석영 교섭대표가 지난달 17~19일 미국에 가서 조문화 작업을 진행했고 그 당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끝을 보지 못해 그 이후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음.
- 그는 그러나 “연말연시이다 보니 아무래도 (당초 예상보다) 좀 지연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일 큰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조문화 작



업이 끝나면 그 결과물을 법제처에서 심사받고 국민 심의를 거쳐 서명해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비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 조정관은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기존의 협정문과 새 협정 내용을 함께 묶어 처리할 것인지 따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제처, 국회와 협의해 하겠다”고 대답했음.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미 의회 지도부에 ‘선(先) 미의회 한미FTA 비준, 후(後) 한국 비준’ 방침을 전달한 것이 정부와 여당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서로 관찰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비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즉답은 피했음.

● 한덕수 주미대사, 美농민단체 상대 FTA홍보(1/4)

- 한덕수 주미한국대사가 8일 애틀랜타를 방문, 미국 농민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임.
- 한 대사는 이날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미국농업인연맹(AFBF) 연차총회에 참석해 지난 연말 한미 양국간에 타결된 한미 FTA가 발효됐을 때 양국 무역관계에 미칠 긍정적 효과 등을 설명하고 조기 비준을 위한 AFBF 회원들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임.
- AFBF는 미국내 농업 및 축산업 관련 단체들을 총괄하는 단체로, 9일부터 12일까지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92차 연차총회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국 대사를 초청했음.
- 한 대사 등 3국 대사들은 AFBF 총회에 참석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모임을 갖고 회원들에게 FTA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벌인 뒤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미 의회 등에 적극적인 로비를 펼쳐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 AFBF는 지난 7월 미국의 40여개 농민·식품단체들과 공동으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미 의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보내는 등 한미 FTA의 조기비준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 미 전역에서 5천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이번 AFBF 총회는 환경정책과 식품안전 및 농업관련 입법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문제에 관해서도 별도 세션을 마련할 예정임.
- 한 외교소식통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한국에 대한 미국 농산물 수출이 50억달러에 달하고, 쇠고기의 한국수출은 약 10만, 5억달러에 달한 가운데 한미 FTA가 비준되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미국 농산물의 대한 수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이에 따라 미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의 조기비준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 대사는 8일 오전 밥 스톨만 AFBF 회장과 만나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한 농민단체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저녁에는 미 동남부 한 인연협회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임.

나. 한·중 관계

● 양제츠 “한반도 평화.안정.비핵화가 中 3대목표”(1/9)

-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정책 목표는 평화와 안정, 비핵화의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부장은 7일 (현지시간) 뉴욕에서 한 미 외교협회(CFR) 초청 연설에서 “이런 목적을 위해 우리는 남북 양측에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를 발휘하며 대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미국의 녹취록 전문 서비스사인 FNS가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 부장은 “압력과 힘은 해결책을 이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사실들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화와 협의만이 출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접촉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관련 당사국들에 격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 또 “우리는 6자회담이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는데 최고의 틀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6자회담 긴급 수석대표 회담과 이 회동 결과에 기반한 조속한 6자회담 재개 등을 제안했음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균형된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관련 당사국들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양 부장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미중 양국이 가장 큰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밀접한 연락과 조율, 협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 中, 해양감시선 2척 서해에 증강(1/7)

- 중국이 서해에 1천t과 1천500t급의 해양 감시선 2척을 증강 배치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해양 주권과 이익 보호 차원에서 2척의 해양 감시선을 칭다오(靑島) 소재 북해함대에 추가했다고 7일 보도했다. 중국 해군은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남해함대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북해함대는 북방지역인 서해를 관할함.
- 중국 국가해양국은 추가된 해양감시선들이 중국의 해양이익 침해행위는 물론 해양환경, 자원 등에 대한 불법 사용과 오염행위 감시에 주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중국은 지난 1999년 1천t급의 해양감시선 13척과 헬리콥터 5대를 해양 감시활동에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16억 위안이 투입되는 해양감시 능력 확대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지난 2005년 11월에도 국가해양국에 6척의 해양감시선과 2대의 헬기가 추가됐음. 아울러 오는 6월 전에 4척의 해양감시선이 증강될 것으로 알려졌다.



- 신화통신은 지난해 5월 발간된 중국 해양발전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해양주권과 이익이 복잡한 상황에 처했으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와 서해를 핵심이익으로 지정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미국과 외교·군사적 마찰을 야기한 바 있다.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기도 했음.
-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이날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의 해양권 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36척의 해양감시선을 새로 건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中 “남북, 대화의 궤도로 돌아가야”(1/4)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4일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남북한의 신년 메시지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유관 각측이 책임 있는 태도로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한다”고 답했음.
- 홍 대변인은 “한반도의 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으로 중국은 줄곧 건설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 국가로서 남북한 쌍방의 공통의 친구”라면서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중국은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우리는 관련국들도 중국과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효한 길이라면서 관련국들이 함께 노력해 6자회담을 진전시키고 9.19공동성명의 각 항목 목표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한반도 정세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매진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남북 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한편 6자회담 당사국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회담을 재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홍 대변인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5일 방중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은 현재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日 “李대통령 방일시 FTA 협상 재개 합의 추진”(1/7)

-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국가전략담당상은 이날 밤 서울



시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봄으로 예상되는) 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 겐바 담당상은 또 “(한·일 FTA의 필요성을) 한국 측도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측에 커다란 장애는 없다”고 협상 재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교도통신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겐바 담당상과의 회담에서 역사 문제나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자 겐바 담당상이 “(FTA 체결로 양국이) 같은 경제권이 됨으로써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빠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 <한일 FTA 협상재개 속도 내나>(1/7)

- 한일 양국 정상이 새해 역점사업으로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인 뒤 FTA 협상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음.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국가전략상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잇달아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하루 앞선 6일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음.
- 특히 겐바 국가전략상은 김성환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는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왔다”며 방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다. EPA는 표현만 다를 뿐 내용상으로는 FTA와 같은 의미임.
- 이에 앞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새해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의 FTA 협상 재개를 꼽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3일 새해 특별연설에서 한일 FTA를 속도를 내어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 간 총리에게 화답했음.
- 일본에서 국가전략상은 경제·안보전략을 총괄·기획한다는 점에서 겐바 국가전략상의 한국 방문은 한일 FTA 추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분석됨.

● 日방위상 방한..군사비밀보호협정 논의(1/4)

-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내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임.
-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일본 방위상이 다음주 방한해 한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며 “올해 중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 양국 국방장관은 오는 10일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국방교류 협력 등 안보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임. 기타자와 방위상은 다음날인



- 11일 판문점과 도라전망대를 방문하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가 천안함을 견학할 계획임.
- 일본 방위상의 이번 방한은 2009년 4월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의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한일 군사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이들 협정이 연내에 끝날지, 아니면 내년에 가능할지도 모른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공감대만 형성되어 있다”며 “ACSA 또한 낮은 수준에서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그는 “협정으로 할지 양해각서(MOU)로 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상호군수지원도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유엔평화활동(PKO) 등의 분야에 국한될 것”이라며 “한반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국방부는 유사시 우리나라를 지원하는 우방국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우리 군의 파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 8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했음.
 - 한편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협력 공동성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는지 일본 방위성에 확인 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 日 “한국과 안보 동맹 언급한 적 없다”(1/4)
- 일본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한국과 안전보장 분야에서 동맹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한국 매체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음.
 - 외무성은 4일 마에하라 외상이 한국 한 신문과 서면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은 ‘(올해 중시하는 테마의 하나는) 안보 분야에서 일한(한일) 양국이 확실히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을 뿐 한일동맹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음. 외무성은 해당 매체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일본 정부가 이처럼 한국 매체의 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최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발언을 했다가 한일 양국에서 비판을 받는 등 양국의 급속한 접근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앞서 한국의 한 신문은 3일 “마에하라 외무상이 신년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한국과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동맹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음.

● 정부 “한일 ‘군사협력 공동성명’ 검토없어”(1/4)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일본이 한국과 군사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새로운 공동선언에 대해 일본측과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음. 이 당국자는 또 한일 양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올 해 상반기 일본 방문을 협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대통령의 방일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음.
-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다자간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지만 양자간 군사협력은 당장 논의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한일 군사협력 강화..공동선언 추진”(1/4)

- 일본이 군사협력을 포함한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 봄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일본의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한일 간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 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현재 협의를 진행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올 상반기 방일에 맞춰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일 신(新) 공동선언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작년 8월 발표했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를 토대로 과거 역사문제의 극복과 미래지향의 파트너십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치, 경제, 문화 등의 포괄적 교류촉진을 명시할 예정임.
- 특히 안보분야에서는 불안정한 북한 정세 대응과 국제테러 대책, 국제 평화유지활동 등에서의 공조 중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 피해시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의 체결, 국방기밀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각각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음.
- 기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이달 10일 한국을 방문해 ACSA 및 GSOMIA에 관해 협의할 예정임. 요미우리는 “일본이 1996년 미국과, 작년에는 호주와 ACSA를 체결해 한국과는 3번째가 된다”면서 “미일, 한미 양국 동맹에 한일간의 공조를 포함한 3개국의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중국해에서 해양활동을 활발화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음.

- 이 신문은 미국도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日, 한국과 군 물품서비스협정 체결 추진(1/4)

- 일본 정부가 외국에 파견된 자위대와 한국군이 서로 군수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소식통이 3일 전했다.
-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오는 10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이 협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또 이 회담에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한 양자 간 협상 가속화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일본 정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의 군사적 협조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해왔음. 한국의 국방 당국은 일본의 제안에 긍정적이지만 외교부 관리들은 과거 일본의 군사적 호전성 등으로 인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 ACSA는 식량과 식수, 연료를 포함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공유할 뿐 아니라 수송 부문 협조와 의료 부문에 이르기까지 상호의무를 가지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정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의됨. 일본 정부는 ACSA의 효력 범위를 한반도 비상 상황에까지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일본은 미국, 호주 등과 이와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음.

● “日외상, 이달 14~15일 한국 방문”(1/3)

-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한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음. 신문은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마에하라 외무상이 오는 14~15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고 한국 측과 최종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마에하라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작년 9월 취임이후 처음으로, 연평도 포격과 핵개발 문제 등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마에하라 외무상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신문은 한일 안전보장협력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음.
- 한편 마에하라 외무상은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한국과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동맹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응하고 중국의 군사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



-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작년 11월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인접국으로 미래 지향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정치·경제·문화 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도 생각해야 한다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음.

라. 미·중 관계

● 中 후진타오 방미일정 확정..18~21일(1/7)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이 18~21일로 확정됐음.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후 주석이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무역 등 양자 간 현안 외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우라늄 농축 문제와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이 3~7일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으며 후 주석의 방문 직전인 9~12일에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찾아오는 등 중국과 미국은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음.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중국은 방미의 의제인 환율과 무역, 북한, 인권 등의 문제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미국은 후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양국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 홍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은 양대 중요 국가로서 많은 공통의 이익과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양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보즈워스, 中 왕자루이 면담(1/6)

- 중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중국측 관리들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방안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베이징(北京) 주재 미 대사관이 밝혔음.
- 미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중국의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장즈원(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을 만났으며, 중국 고위 관리들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성명은 또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중국 관리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협력할지에 관해 유용한 협의를 했다”고 소개했음.
- 앞서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장즈원



부부장 등과 회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이 한반도 정세, 6자회담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6자 회담 진전을 추구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 美-中, 한반도 논의..美, ‘北진정성’ 요구(1/6)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 중단 등 한반도 문제를 협의했음.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긴장완화의 중요성과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 6자회담의 중요성 등을 재확인했음.
-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무조건적인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우선 그 제안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며 추가 도발 중지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회담 뒤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협상을 약속하기 이전에 북한이 진정한 진지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북한이 해야 할 명백한 일들이 있다”고 밝혔다.
-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은 지속가능하고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일 필요가 있다”서 “이 (무조건적인 대화) 제안이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북한이 ‘좋아. 우리가 (대화) 돌아갈게’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면서 “적절한 환경 (appropriate context)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그는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양자나 다자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전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돼 있다는 점을 한국과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도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약속하는 것도 하나의 조치이며, 2005년 공동성명의 약속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또 다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가 양 부장에게 전한 것은 현재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라면서 한국이 북한의 무조건적인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대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 그는 “남북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이 아직 연평도 도발이나 천안함 격침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오는 19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열린 이날 회담은 오찬을 겸해 2시간여에 걸쳐 이뤄졌으며, 한반도 문제가 “매우 자세히” 장시간 거론됐다고 크롤리 차관보는 전했다.



제들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 미국은 특히 이날 면담에서 미·중 양국간의 무역에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도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하와이에서의 연말 휴가를 마치고 이날 워싱턴으로 돌아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두 사람 간의 면담에 합석, 양 부장을 만났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광범위하고 긍정적이며 협력적인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후 주석의 미국 방문 및 글로벌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함께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나가기 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전했다.

● “美·中정상회담 한반도가 주의제”(1/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 간 이달 정상회담은 한반도가 주요 의제라고 미국 주재 대만 대표인 위안젠성(袁健生)이 밝혔다. 미국은 후 주석의 18~20일 방미에 대해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駐美國台北經濟文化代表處)에 최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알려주었다고 위안 대표가 밝힌 것으로 대만 관영 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 위안 대표는 미국이 정상회담을 안배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반도 문제이며,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현재 대만-미국 관계가 60년만에 가장 좋은 상태여서 중요 방문이나 중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만 대표처에 사전, 사후에 모두 상세하게 브리핑해주고 있다고 공개했다. 미국측은 또 후 주석의 방문으로 미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위안 대표는 전했다.
- 그는 지난달 대만을 방문해 입법원(의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리청란(李澄然) 주미 부대표는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코뮌니케나 성명에 서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미측에 요구했다고 지난달 대표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 美 백악관, 中에 환율압박 계속 시사(1/4)

- 로버트 기브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3일 미국이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 절상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 기브스 대변인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19일 방미를 앞두고 이날 한 트위터 사용자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올해 미·중 관계에 대한 계획을 묻자 “그들(중국)은 방미의 의제인 환율과 무역, 북한, 인권 등의 문제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해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 미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국민방문을 앞두고 지속적인 환율 절상 압박이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음.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 주석의 방미가 (우리의 압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했는지를 가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은 중국이 수출 증대를 위해 달러 대비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상품 수출과 경제회복에 손해를 끼친다는 입장임. 그러나 중국은 후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최근 위안화 환율을 서서히 소폭 절상하는 움직임을 보였음.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31일 위안-달러 기준환율을 6.6227로 맞췄고 이는 지난해 6월 19일에 비해서는 3% 가량 절상된 것임.
- 미·중 양국이 준비하는 화려한 외교행사의 물밑에는 각종 이슈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 일례로 미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음.
-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관리들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5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임.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9일부터 12일 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게이츠의 방중은 지난해 초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키로 한 결정에 반발해 중국이 양국 간 군사교류를 중단한 뒤 1년여만에 이뤄지는 것임.

● 中양제츠 외교부장 오늘 방미(1/3)

-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3일부터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함. 양 부장의 방미는 이달 19일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의제 조율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 등 양자 간 현안 외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우라늄 농축 등 한반도 긴장 완화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양 부장과 클린턴 장관의 만남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3~6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하고,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9일부터 14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 등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미중 간 접촉이 활발히 이뤄질 예정임.
-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양 부장의 방미 계획을 전하면서 “양국 관계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는 밝히지 않았음.



마. 미·일 관계

● 미·일 “한반도 관련 새 전략목표 책정합의” <日紙>(1/7)

-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무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매체들이 “양국이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 정세와 관련해 새로운 공통 전략 목표를 만들기로 정식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음.
- 요미우리신문은 7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이 일본의 방위나 ‘주변사태’에서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하고 새 전략목표를 책정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연평도 포격 등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 일본이 말하는 ‘주변사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사태를 일컬음. 일본은 1999년 한반도 유사시 등을 가정해 주변사태법을 제정, 미군의 활동에 자위대가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음.
- 신문은 “(향후 미·일 양국이)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최신 정세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마이니치신문 등 다른 매체들도 “(미·일) 양국이 북한 정세나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공통 전략목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음.
- 미·일 양국은 2005년 2월에 국제 테러, 북한의 핵개발, 중국-대만 분쟁 등을 상정해 ‘공통 전략목표’를 만들었고, 올해 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새 목표를 내놓기 위해 사전 논의를 하고 있음.
- 한편 아사히신문은 마에하라 외상이 이날 양국 외교회담에 앞서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에서 강연을 통해 ‘미·일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제창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美, 일본과 TPP서 쇠고기 등 농업에 유연”(1/6)

- 미국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쇠고기 등 농업분야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음.
- 신문은 미국이 13일과 14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TPP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 완화 등 비관세장벽 제거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경제력이 급성장하고,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을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음.
- 미국은 그동안 일본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 완화 등 비관세 장벽 제거와 높은 수준의 농산물시장 개방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었음.

-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일본과의 TPP 협의에서 농산물 관세철폐에 경과기간을 둘 예정이며, 쇠고기 수입제한 완화 문제는 TPP 협회가 아닌 ‘양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다룬다는 방침임. 이는 버락 오바마 정권이 중국을 의식한 전략적 견지에서 일본과 TPP 협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임.
- 일본 정부는 미국 등 TPP 참가 9개국과 개별 협의를 진행한뒤 오는 6월까지 최종 참여 여부를 확정할 방침임.
- TPP는 원칙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참여하고 있음.

바. 중·일 관계

● 중·일, 對테러 협력 강화 합의(1/6)

- 중국과 일본은 6일 베이징(北京)에서 첫 테러대책 협의를 열고 지역과 국제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6일 발표했다.
- 외무성에 따르면 고지마 다카야키(小島高明) 대테러 담당 대사가 이끄는 일본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에서 뤼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안전사무사 사장(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과 만나 테러행위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란 사실에 의견을 같이했음.
- 고지마 대사와 뤼 사장은 또 개발도상국에 테러대응과 관련한 역량 지원 등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 방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이와 함께 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다자 외교무대에서 테러대책 협의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음.
- 이밖에 양국 대표단은 한·중·일이 지난해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이른 시일 내에 테러 퇴치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음. 이날 양국 간 협의는 지난해 11월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이뤄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개최된 것임.
- 양국은 지난해 12월 유엔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급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날 테러대책 협의를 개최함으로써 최근 닌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근해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충돌사건을 계기로 악화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되고 있음.

● “日, 中과 EEZ 분쟁 압초 정비공사 본격화 계획”(1/6)

- 일본이 중국과 배타적 경제구역(EEZ) 설정 문제로 갈등을 빚는 태평양 상의 압초에 150~200m 길이의 접안시설을 만드는 등 보강



- 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2011년도(2011년 4월~2012년 3월)부터 6년간 750억엔(약 1조원)을 들여 태평양에 있는 작은 암초인 ‘오키노도리(沖ノ鳥)’에 해양조사선 등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안벽(岸壁)을 건설할 예정임. 안벽은 항구 등에 수직으로 쌓는 옹벽임. 일본은 또 오키노도리 주변 바다에 희귀금속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4월부터 조사를 벌일 방침임.
 - 오키노도리는 일본 남쪽 1천700km 공해상에 있는 산호로 이뤄진 2개의 암초임. 원래 이름은 ‘파레체 벨라’이며, 대만과 괌의 중간쯤에 있음. 일본은 1931년 이곳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섬)라고 선언했음.
 - 중국은 오키노도리가 “사람이 거주하면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라며 2009년 8월 대륙붕 확장을 협의하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일본이 이곳을 중심으로 EEZ를 설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음.
 - 일본이 오키노도리에 대형 접안시설을 만들려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섬’으로 인정받아 이곳을 중심으로 EEZ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일본이 오키노도리 주변에 설정하려는 EEZ는 40만km²로 일본 본토 면적(38만km²)보다 넓음.
 - 일본은 지난해 5월 오키노도리를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었고, 안벽 등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이 암초는 자원개발과 어로 활동 등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는 걸 막는다는 군사적인 목적에서도 요충지로 꼽히고 있어 앞으로 중국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됨.